



경기도의회 대표단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 벤치마킹

내년 지방선거前 지방분권형 개헌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역할 모색

경기도 현안의 해법을 찾아 나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관광 외교로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부천1)이 문화와 관광의 메카인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밀라노를 찾아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방안을 찾아나섰다.

단체위 위원들은 5월 3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국을 탐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물관리 기법을 수원화성, 남한산성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는 폼페이 유적지 등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관광 자원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선사시대 유적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자원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설과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인 두오모 광장의 콘텐츠 상품가치를 확인하고, 경기도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야 한다며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6월 3일에는 밀라노로 이동해 이탈리아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산시로(San Siro) 경기장을 공식방문했다. 산

시로(San Siro)는 8만명을 수용하는 축구경기장으로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과 인터밀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당 평균관중 5만여명, 인터밀란의 입장료 수입이 연간 1500억원에 이르고 광고·상기운영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번 국외연수는 염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박용수·권태진 간사와 김상돈·곽미숙·김달수·김광철·이상희·국은주·송낙영·윤태길·윤화섭·임동본·정윤경 의원 14명의 단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이탈리아·스위스·독일에서 진행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경기북부 특성화고교 발전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홍석우 도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1)

은 5월 31일~6월 1일 이틀 동안 한국 문화영상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과 함께 경기북부 특성화고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현재 경기북부에는 동두천 한국문화영상고와 양주 한국과학외고 두 곳이 있다.

이번 토론회 자리는 특성화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 선후배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으며,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자유롭게 공유됐다.

홍석우 도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이 제시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새겨들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새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를 벤치마킹했다. 스페인·스위스·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형태에 따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태를 돌아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향후 준비와 역할을 모색했다.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이 단장을 맡았으며, 박승원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공명3), 최호 대표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 배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한 대표단은 산즈 바리오스 마리아 크리스티나 상원의원을 만나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분권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 역사와 수정 내용,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행정·재정 권한의 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어서 대표단은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환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희권 대사는 "스페인도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지방분권형 국가"라며 "헌법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개헌을 앞두고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며 스페인의 정치 문화와 사회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6월 6일에도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를 방문해 지방분권의 현정 질서를 근간으로 국민통합을 이룬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7일에는 일드프랑스 지역정부를 방문해 2003년에 분권형국가로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같은 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와 헌법개정 워크숍을 통해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손 끝에서 시작되는 사이버 범죄!

성숙한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주세요.